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불신 조짐 대두

□ IMF는 유럽의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
- 스트레스테스트의 완전 공개에 대해 유로지역 금융기관 감독자들의 저항이 다소 느껴진다고 밝히면서 시나리오의 전제조건과 결과들을 개별 은행 수준까지 확대하여 더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.
- 특히,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채권 보유로 인한 손실규모가 스트레스테스트에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함.
- 그리스 정부채권에 대한 프랑스, 독일 은행들의 정확한 손실규모 공개가 스트레스테스트를 신뢰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힘.

□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시나리오 정보 공개 부족과 불투명성이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.

- 그리스 정부채권은 평가절하가 17%가 아닌 23%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은행권의 손실규모 확대가 예상되었으나, 스트레스테스트에서는 만기보유증권계정이 아닌 단기유가증권계정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손실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.
 -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전에는 그리스 정부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채권의 90% 이상을 만기보유증권계정으로 회계처리해 왔었음.

□ 또한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소문이 확대되면서 스트레스테스트의 불신이 더욱 커짐.

- 독일은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Landesbanken과 Hypo Real Estate 만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소수의 은행들만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짐.

(Financial Times, 7/20. 7/21)